

# 〈道統歌〉와 〈黃江九曲歌〉 창작의 정치적 배경

이 상 원\*

## 〈 목 차 〉

- I. 머리말
- II. 〈道統歌〉 창작의 배경과 목적
- III. 〈黃江九曲歌〉 창작과 『玉所藏』 편찬의 의미
- IV. 결론

## 〈Abstract〉

Political Background in the Creative Writings of  
〈Dotong-ga〉(도통가) and 〈Hwangganggugok-ga〉(황강구곡가)

Lee Sang Won

The research is focused on the political background in the creative writings of Kwon, Seop(권섭)'s 〈Dotong-ga〉(도통가) and 〈Hwangganggugok-ga〉(황강구곡가).

Kwon, Seop(권섭)'s 〈Dotong-ga〉(도통가)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18th century Horak dispute(호락논쟁). Horak dispute(호락논쟁), which started with the Inmulsungdongyee(human nature & property of matter) dispute(인물성동이논쟁) started to become a regional dispute and as a result, it's characteristics transformed in to political issues. As a result, the Nakron(낙론) denied the dotong(spiritual genealogy, 도통) of Chosun, which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was in the order of "Lee, Lee(이이)→Song, Shi-Yeol(송시열)→Kwon, Sang-Ha(권상하)" and advocated a new paradigm, which was in the order of "Lee, Lee(이이)→Song, Shi-Yeol(송시열)→Kim, Chang-HYeop(김창협)". This transformation led Kwon, Seop(권섭) to write the <Dotong-ga>(도통가).

On the other hand, during the Horak dispute(호락논쟁), Kwon, Seop(권섭)'s creative writing of <Dotong-ga>(도통가), which tried to establish the true spiritual enlightenment failed to do so. In 1745, his book <Hwanggang-Seowon Myojeongbi>(황강서원묘정비) clearly showed that dotong(spiritual genealogy, 도통) led from Song, Shi-Yeol(송시열) to Kwon, Sang-Ha(권상하), and composed the <Dotong-ga>(도통가) in 1748. We can also find that in 1752, through compilations in <Hwangganggugok-ga>(황강구곡가) and ■■■Oksojanggae■■■(옥소장계), his business was finalized.

Lastly, when looking at the creative writings of <Dotong-ga>(도통가) and <Hwangganggugok-ga>(황강구곡가), we need to reconsider the biased view that Kwon, seop(권섭)'s literature tried to pursuit uniqueness and liberalism.

## I. 머리말

조선시대 시가를 당대의 정치와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예컨대 16·17세기 강호시조나 강호가사를 해석하면서 당대의 정치사나 사상사를 염두에 두지 않은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시적으로 정치사나 사상사와 연관을 짓고 있는 연구는 물론이고 겉으로 보기에 이들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연구들도 실은 논의의 바탕에 그것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이 현상이 사실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나

타낸다는 점을 발견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16·17세기 시가 연구에서는 정치·사상·학과·지역 등의 용어를 흔히 찾아볼 수 있지만, 조선후기 즉 18·19세기 시가 연구에서는 이들 용어가 예술·음악·회화·연행 등의 용어로 대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18·19세기 시가 연구가 정치와의 연관성보다는 당대 여타 예술과의 관련성을 증시하는 입장에서 진행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나타난 문학 환경—또는 예술 환경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이렇듯 뚜렷이 대비되는, 두 시기에 대한 연구 경향과 관련하여 특별히 시비를 걸 필요는 없을 듯하다. 왜냐하면 이들 연구 경향은 당대 문학 환경을 적절히 고려한 상태에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조선후기 문학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인정한다 하더라도 조선후기 시가를 정치사적 맥락에서 해석하려는 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sup>1)</sup> 특히 일부 사대부 시가의 경우 정치사적 고려 없이 온전한 작품 해석이 가능할지 의문이 드는 것들도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玉所 權燮(1671~1759)의 <도통가>라 할 수 있다.

권섭은 75수의 시조와 2편의 가사를 남긴 조선시대 대표적인 국문시가 작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연구는 이런 위상에 걸맞지 않게 소략한 편이다.<sup>2)</sup> 여기에는 작품 소개가 비교적 늦게 이루어진 점, 문집의 양이 방대한

1) 이와 관련 최근 <노처녀가 I>을 당대 정치권의 노처녀 담론과 연결지어 해석한 고순희의 연구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순희, 『<노처녀가 I>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14집(한국시가학회, 2003.8), 165~193면 참조.

2) 지금까지 나온 권섭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박사논문(동국대학교, 1986).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탐구당, 1990).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석사논문(서울대학교, 1992).

장정수, 『<영삼별곡> 연구』, ■■■어문논집■■■32(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3).

정홍모, 『옥소 권섭의 시조 재론』, ■■■대진논총■■■1(대진대학교, 1993).

이창식, 『권섭의 가사 <영삼별곡>과 <도통가>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집(세명대학교, 1996).

박길남, 『권섭 시조의 주제의식 고』, ■■■한남어문학■■■21(한남어문학회, 1996).

윤정화, 『옥소 권섭 연시조의 성격과 그 시조사적 의미』, ■■■국어국문학■■■35(부산대학교, 1998).

점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몇 년간 그에 대한 연구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의 연구는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옥소장계■■■에 수록된 구곡가계 시가 전반을 총체적으로 논하거나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그의 작품을 연관짓는 등 관심의 폭과 깊이를 담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몽화』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문집의 일부를 번역한 이창희의 작업 또한 앞으로 권섭 연구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런 의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연구에서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하나 있다. 그것은 권섭 문학의 성격을 너무 단선적으로 이해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다.

작품 소개 당시부터 최근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권섭 문학 연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권섭의 개성적 면모와 자유분방함을 그의 문학 작품과 자연스럽게 연계시키고 있는 점이다. 필자는 이런 시각이 크게 잘못되었다고는 보지 않는다. 문제는 이런 시각이 권섭의 모든 문학을 온전히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도통가>를 이런 시각에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또한 <황강구곡가> 창작과 ■■■옥소장계■■■의 편찬 작업을 이런 맥락 하에서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이 글에서는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의 배경과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 II. <道統歌> 창작의 배경과 목적

김문기, 『옥소 권섭의 구곡가계 시가 연구』, ■■■청봉 최태호 박사 화갑기념논총 ■■■(동 논총간행위원회, 2000).

최호석, 『옥소 권섭의 소설 한역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11(고소설학회, 2001).

박이정,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권섭의 <황강구곡가>』, ■■■관악어문연구■■■27(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장정수, 『<황강구곡가>의 창작 배경과 그 성격 연구』, 한국시조학회 제35차 전국 학술대회 발표문, 2003.5.17.

이창희 역주, ■■■옥소 권섭의 꿈세계-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다운샘, 2003).

<도통가>는 권섭의 나이 78세인 1748년에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그는 만년에 이르러 이전의 작품들과 뚜렷이 구별되는 <도통가>를 지은 것일까? 이에 대한 기존의 해석부터 먼저 보기로 하자.

權變이 <道統歌>를 짓게 된 동기는 우연한 결과가 아니었다. 그의 생애를 보면 무척 자유분방한 일생을 보냈고, 道學者로 자처한 바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주변적인 여러 여건으로 보면 道學的 陰影이 짙게 드리웠던 것을 볼 수가 있다. 첫째, 외적 요건으로는 權變이 생활했던 顯宗代(1671년 출생)로부터 英祖代(1759년 別世)까지의 기간은, 儒敎思想이 이 나라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이래 어느 기간보다도 농후하게 영향을 미쳤던 기간이었다는 사실과 둘째, 내적으로는 宋時烈의 學統을 이어받은 首弟子 權尙夏가 바로 權變의 백부였다는 사실이다.<sup>3)</sup>

권섭의 작품을 처음 발굴하여 소개한 박요순은 권섭이 <도통가>를 짓게 된 배경을 위와 같이 정리한 뒤, 그가 <도통가>를 지은 궁극적 목적은 단순히 도학의 統緒를 밝혀 보고자 한 것만이 아니라, 宋時烈(1607~1689)과 權尙夏(1641~1721)의 도학자적 위치를 높이 부각시켜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고 하였다.<sup>4)</sup> 이후 <도통가>에 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대체로 이 시각과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sup>5)</sup> 그러면 이런 기존의 시각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우선 <도통가> 창작의 배경이나 동인을 18세기 유교사상의 영향과 권상하와의 개인적 관계에서 찾는 것은 지극히 원론적이고 현상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다음으로 <도통가>를 지은 목적이 송시열과 권상하의 도학

---

3) 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탐구당, 1990), 72면.  
4) 위의 책, 87면.  
5) 다만 <도통가>와 <황강구곡가>를 연계하여 “말년에 그가 자신에게 제시한 문학적 대안”으로 해석한 박이정의 논의는 비교적 새로운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박이정의 경우 <황강구곡가>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도통가>에 대한 언급은 아주 소략한 편이다. 박이정,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권섭의 <황강구곡가>』, ■■관악어문연구■■■27(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283~304면 참조.

자적 위치를 높이 부각시켜 보고자 하는 데에 있다는 것 또한 현상적 지적에  
머문 감이 있다. 작품을 통해 이를 확인해 보기로 한다.

所以發 燭照物在 一言이 붉고 붉아  
 新奇한 이 큰 功이 師友間的 發揮하니  
 太極極面 날生字를 뒤라서 是非호리  
 聖學輯要 一部書는 一生의 精力이라  
 名目도 奇特호고 次序도 도홀시고  
 그 窺회 늙은 先生 私淑호여 나뉠 말가  
 一百卷 지은 글이 篇篇이 朱子 | 로다  
 罔極호 大禍根이 門屏에 니러날샤  
 天地間 一直字를 後學의 맞지거다  
 華陽 萬東廟를 뜻 바다 지으시니  
 萬古 綱常이 떠러질 적 이실손가<sup>6)</sup>

처음 다섯 줄은 栗谷 李珥(1536~1584)와 관련된 내용이고, 다음에 이어지는  
 여섯 줄은 송시열·권상하와 관련된 내용이다. 여섯째 줄의 “늙은 先生”은 송  
 시열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가 율곡을 사숙하였으며 그의 모든 저술이 주자의  
 뜻에 합치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기사환국(1689년)으로 송시열이 賜死되기  
 직전 권상하에게 一直字의 가르침을 전수하였으며,<sup>7)</sup> 만동묘를 세워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라는 송시열의 뜻<sup>8)</sup>을 권상하가 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  
 의 내용은 조선의 도학이 ‘이이→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말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도통가>를 지은 목적이 송시열과 권상하를

6) 박요순, 앞의 책, 234~235면.

7) 송시열이 죽음에 임박해서 권상하에게 “천지가 만물을 내는 소이(所以)와 성인  
 이 만사를 응대하는 소이가 직(直)일 뿐이므로 공자 맹자 이후로 서로 전하신 것  
 은 오직 이 하나의 직자뿐이었네.”라 말한 것을 가리킴. 이는 주자가 임종할 때  
 문인들에게 한 말을 송시열이 따른 것이다.

8) 송시열이 사사될 때 명나라 신종과 의종의 사당을 세워 제사지낼 것을 권상하  
 에게 유명(遺命)으로 부탁한 것을 말한다. 권상하는 유명을 받들어 만동묘를 짓  
 고 1704년 1월 7일 처음 향사(享祀)하였다.

부각하기 위한 것이라는 기존의 해석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것이 과연 권상하가 <도통가>를 지은 **궁극적** 목적이라 할 수 있을까? 즉 권섭의 <도통가> 창작이 단순히 송시열과 권상하를 부각하기 위해, 또는 조선의 도학이 ‘이이→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진다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라는 차원에 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혹 이를 통해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었을까? 이는 <도통가> 창작의 배경이나 동인과의 연결된 문제라 할 수 있다. 권섭으로 하여금 <도통가>를 짓게 만든 데에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원론적 차원을 넘어서는 어떤 깊은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통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도통은 ‘유학의 참 정신이 전해 내려온 큰 흐름’을 뜻하는 말로, 이미 세상을 떠난 한 인물이 유학의 참 정신을 이론과 실천을 통해 제대로 구현했는지에 대한 ‘절대평가’의 의미를 갖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도통은 나라 전체의 공론과 조정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본래적 의미를 지칭할 뿐이다. 현실적으로 여러 학통이 서로 경쟁하는 경우, 유학의 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목숨을 바쳐 노력했던 인물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평가는 학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이유에서 도통을 둘러싼 문제는 한편으로 ‘학문적’ 문제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정치적’ 문제이기도 하다. 조선후기 도통 담론—예컨대 이이와 성혼의 문묘 종사를 두고 벌어진 서인과 남인의 대립, 김장생과 송시열·송준길의 문묘 종사를 두고 벌어진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이런 사정을 잘 보여준다.<sup>9)</sup>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권섭이 만년에 <도통가>를 지었다는 것은 예사롭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그에게는 <도통가>를 지어야만 하는 절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권섭으로 하여금 <도통가>를 지을 수밖에 없도록 만든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와 관련 이 시기에 전개된 湖洛論爭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호락논쟁은 18세기 초·중엽 호서지역 노론과 서울·경기 지역 노론 사이에서

9) 이상 도통에 대한 서술은 ‘이승환, 『道統-유학의 참 정신을 잇는 계보』,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후학의 개념들■■■(예문서원, 2002), 460~484면’을 참조한 것임.

벌어진 心性論爭을 말한다. 그러나 호락논쟁이 처음부터 지역적 대립으로 전개된 것은 아니었다. 논쟁의 발단은 人物性同異 문제와 관련 권상하의 제자가운데 李柬(1677~1727)과 韓元震(1682~1751)이 의견 차이를 나타낸 데서 비롯되었다. 이간은 人物性的의 같음과 未發의 心體는 純善하다는 입장을 취한 데 비해, 한원진은 人物性的의 다름과 미발 심체 역시 선악이 함께 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 논쟁 과정에서 스승 권상하는 한원진의 人物性異論을 지지함으로써 호서 지역 노론내의 이 논쟁은 한원진이 우세를 점하게 되었다. 人物性同異論으로 지칭되는 이 논쟁이 지역 간 학풍의 차이를 반영하는 호락논쟁으로 전개되는 것은 朴弼周(1665~1748)·魚有鳳(1672~1744)·李緯(1680~1746) 등 서울·경기 지역 노론 학자들이 이 논쟁에 관심을 갖고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면서부터였다. 특히 1746년 이재가 <寒泉詩>를 짓고 이것에 대한 응답으로 한원진이 1747년 <題寒泉詩後>를 지어 이재의 학설을 비판하였는데, 이는 호락논쟁이 지역적·학문적 대립 구도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만든 계기가 되었다. 이후 호론과 낙론은 각기 지역의 학문으로 고착화되어 갔으며, 자연스럽게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 이재와 한원진은 각각 김창협과 권상하를 계승하여 낙론과 호론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기 때문이다.<sup>10)</sup>

그러면 이런 호락논쟁과 권섭의 <도통가> 창작 사이에는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 호락논쟁이 초기의 인물성동이논쟁을 벗어나 지역적 대립 구도를 형성하고 정치적 색채를 띤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辛壬獄事(1721~1722)를 겪으면서 노론은 소론에 대항해 대동단결할 필요가 있었으나, 庚申處分(1740)과 辛酉大訓(1741) 이후 노론이 정국을 주도하면서 다시 자체 분열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다.<sup>11)</sup> 이 때는 호락논쟁이 본격화되던 시기로, 낙론

10) 이상 호락논쟁에 대한 서술은 ‘윤사순, 『人性 物性的의 同異論辯에 대한 연구』, ■■■한국유학사상론■■■(열음사, 1986)’, ‘이애희, 『人物之性-인간과 사물의 본질』,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유학의 개념들■■■(예문서원, 2002)’, ‘서동일, 『■■■頤齋亂藁■■■에 나타난 조선후기 湖洛논쟁』, ■■■古文書研究■■■ 20(한국고문서학회, 2002)’, ‘권오영, 『호락논변의 쟁점과 그 성격』,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돌베개, 2003)’, ‘趙成山, 『朝鮮後期 洛論系 學風의 形成과 經世論 研究』(고려대 박사논문, 2003)’ 등을 참조하여 정리한 것이다.

11) 노론 내부의 분열이 본격화한 것은 1740년대이지만 이 분열의 단초는 이미 17

은 호론을 향해 ‘천하 사람들이 선으로 가는 길을 막는[沮天下爲善之路] 매우 우려할 만한 생각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였으며, 호론은 낙론을 향해 ‘無分 논의에 빠져 있다’고 비판하였다. 주목할 것은 상호비판이 가열되면서 결국 ‘권상하-한원진’ 계열과 ‘김창협·김창흡’ 계열의 대립 구도가 확립되기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즉 낙론 계열은 자신들의 견해를 金昌協(1651~1708)에 연결시킴으로써 기호학파의 계보를, 호론 중심의 ‘송시열→권상하→한원진’에서 낙론 중심의 ‘송시열→김창협→이재’로 재구성하고자 하였다. 바로 이것이 권섭으로 하여금 <도통가>를 짓게 한 핵심 동인이라 할 수 있다. 권섭과 호론의 입장에서 보면 송시열의 계승자로 권상하 대신 김창협을 내세우는 낙론의 입장을 묵과할 수 없었기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이 <도통가>의 창작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권섭은 <도통가>의 창작을 통해 송시열의 진정한 계승자가 권상하임을 천명함으로써 김창협을 따르는 세력들을 견제하고 권상하 문인들을 결집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는 17세기 후반 ‘주자절대화’ 경향과 ‘尊周大義論’으로 요약되는 송시열의 정치사상을 계승하여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sup>12)</sup>

세기 말 권상하와 김창협이 갈등에서 시작된 것이었다. “우암 선생이 차의의 서문을 읽어 선생에게 주며 말하기를 ‘지금부터 차의를 그대와 중화(김창협)의 字)가 헤아려 수정하여 고쳐라.’ 하니, (중략) 선생이 말하기를 ‘중화와 편안히 지내며 강론하는 것을 기필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어찌해야 합니까?’ 하니, 우암 선생이 말하기를 ‘동보(이회조의 字)가 꽤나 자상하고 세밀하니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하였다.”(<寒水齋先生年譜> 1689년 2월 11일자, ■■국역 한수재집■■5, 민족문화추진회, 1990, 20~21면)는 기록과, “영숙이 삼주(김창협)의 호)가 우암을 아는 것이 어느 정도냐고 물으니, 선생이 이르기를, ‘일찍이 그와 더불어 조용히 강론해 보지 못해서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우암에 대한 제문에 ‘임금이 알아보고 함께 대인이 되었다.’는 말로 보면 우암의 경지를 다 알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은밀한 곳에 이르러서는 간혹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서 여상(이여를 가리킴)이 나에게 ‘중화를 급히 보고 강론을 귀일시켜야 한다...’고 한 것이다.’ 하였다.”(<黃江問答>, ■■국역 한수재집■■5, 민족문화추진회, 1990, 262면)는 기록을 통해 권상하와 김창협이 갈등을 짐작할 수 있다.

12) 정치적으로 볼 때 호락논쟁은 ‘지배질서의 공고화 : 지배질서의 재정비’의 구도

그러면 도통과 관련한 권섭의 의사 표명은 단지 <도통가>에 국한된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그의 ■■■옥소장계■■■를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Ⅲ. <黃江九曲歌> 창작과 ■■■玉所藏杏■■■ 편찬의 의미

여기서는 <황강구곡가>와 ■■■옥소장계■■■에 대한 고찰을 통해 권섭의 만년 삶에 있어서 도통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던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우선 ■■■옥소장계■■■의 체재부터 보기로 하자.

武夷權歌詩(朱子)

高山九曲記(崔昱)

高山九曲歌(李珣)

高山九曲歌詩(宋時烈)

高山九曲用武夷權歌韻(宋時烈 外 9人 연작)

石潭窮尋九曲用武夷權歌韻(權燮)

翻栗翁高山九曲歌用武夷權歌韻(權燮)

高山九曲圖說(權燮)

又書(權燮)

華陽九曲圖說(權燮)

後記(權燮)

又書(權燮)

九曲詩(權燮)

尤菴先生畫像贊(權尙夏)

尤菴先生畫像贊(金昌協)

黃江九曲歌(權燮)

---

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黃江九曲用武夷權歌韻翻所詠歌曲(權燮)

黃江九曲圖記(權燮)

書黃江九曲圖後(權燮)

寒水先生遺像贊(權燮)

又一本(韓元震)

撰(蔡之洪)

撰(尹鳳九)

黃江書院廟庭碑(權燮)

■■옥소장계■■는 여러 사람이 쓴 각종 시문 24종을 모아놓은 것인데 크게 보면 주자의 <무이도가>, 이이와 관련된 것, 송시열과 관련된 것, 권상하와 관련된 것의 넷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체제가 ‘주자→이이→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는 도통을 밝히기 위해 의도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권섭은 그의 나이 82세 때인 1752년 무렵에 이 ■■옥소장계■■를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몇 편의 글 뒤에 붙어 있는 “崇禎後再壬申冬日”, “崇禎後再壬申夏日”, “八十二歲” 등의 기록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이것은 ■■옥소장계■■ 편찬이 4년 전에 창작된 <도통가>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전체 체제와 함께 ■■옥소장계■■에서 주목되는 것은 <황강구곡가>와 <황강서원묘정비>라 할 수 있다. 이 중 먼저 <황강서원묘정비>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황강서원묘정비>는 1745년에 지은 것이다.<sup>13)</sup> 황강서원은 1725년에 세웠는데, 처음의 계획이 세심하지 못하여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했으므로 이 해에 약간 우측으로 옮겨 공소(孔昭)의 언덕에 다시 세웠다. 이에 여러 사람의 권유에 따라 권섭이 묘정비를 짓게 되었다. 그런데 묘정비의 후반부에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어 주목된다.

화양동(華陽洞)의 만동묘(萬東廟)는 실로 우옹의 유명(遺命)을 받은 것으로,

13) “崇禎後再乙丑 月 日 從子玉所山人燮撰”이라는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화를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들의 말에 조금도 굽히지 않고 존주(尊周)의 대의(大義)를 편 것이다. 그러므로 대보단(大報壇)을 쌓는 데에도 성지(聖志)의 열렬함으로 힘껏 도왔다. …(중략)… 또 쓰기를, “만동사(萬東祠)를 한 쪽의 대명(大明)의 천지에 세우고, 일직자(一直字)를 천년 뒤 한수(寒水)의 추월(秋月)에 전하였다.” 하였는데, 이것은 사업(事業)과 도통(道統)을 말한 것이다.<sup>14)</sup>

권섭은 권상하 사후 거실 가운데 그의 影幀을 걸어놓고 또한 贊을 지었는데, 위에서 “만동사(萬東祠)를 한 쪽의 대명(大明)의 천지에 세우고, 일직자(一直字)를 천년 뒤 한수(寒水)의 추월(秋月)에 전하였다.”라고 한 것은 이 찬의 일부를 소개한 것이다.<sup>15)</sup> 사실 권상하가 송시열의 유명을 받들어 만동묘(또는 만동사)를 세운 것과 一直字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것에 대해서는 권섭의 찬뿐만 아니라 권상하의 제자들이 쓴 연보, 행장, 묘지명, 제문 등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것이다. 권상하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통해 송시열 학문과 사상의 진정한 계승자가 권상하임을 밝히고 싶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언급 자체는 별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인용문 마지막에서 언급한, “이것은 사업과 도통을 말한 것”이라는 표현에 있다. 사업은 만동묘를 세운 것을 가리키며, 도통은 一直字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것을 말한다. 권섭이 <황강서원묘정비>에서 이 언급을 하기 이전에 도통을 명시적으로 표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한원진을 비롯한 권상하의 제자들은 송시열의 도통이 권상하를 거쳐 자신들에게 이어졌음을 당연하게 생각했겠지만 도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꺼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던 것이 1745년 권섭이 쓴 <황강서원묘정비>에서 비로소 도통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권섭이 권상하와 특수한 관계에 있기 때문이라기보다 이 때가 도통을 표명할 수밖에 없

14) 華陽洞之萬東廟，實承尤翁遺命，不少撓於樂禍者之言，伸尊周之大義。故大報壇之築，亦力贊聖志之烈烈…(중략)…其曰，萬東祠，立一片大明之天地，一直字，傳千載寒水之秋月者。事業也。道統也。<黃江書院廟庭碑>，■■玉所藏杏■■，64~65면. 이 자료는 ‘이창식, 『권섭의 가사 <영삼별곡>과 <도통가>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집(세명대학교, 1996)’에 부록으로 실려 있음.

15) 이 구절은 ■■■옥소장계■■■에 수록된 <寒水先生遺像贊>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황강서원묘정비>의 도통 언급이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할 때 마지막에 붙인 銘의 내용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춘추로 제사하는	春秋祿將
많은 유생들	濟濟青衿
화양 석담의	華陽石潭
천고 심법 전함일세	千古傳心
고택을 우러리보니	瞻依故宅
솔 그늘 연했는데	松翠連陰
삼구의 명망 가지런하니	三區匹名
지나는 이 모두 공경하리	過者齊欽 <sup>16)</sup>

“三區匹名”의 ‘삼구’는 이이의 석담, 송시열의 화양, 권상하의 황강을 가리키는 것이니, 여기서 우리는 권상하가 호서학파 내에서 절대적 위치로 자리잡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황강서원묘정비>를 통해 권섭의 도통론이 1745년에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도통론은 1748년 <도통가>의 창작으로 이어졌고, 다시 1752년 <황강구곡가>의 창작과 ■■옥소장계■■의 편찬으로 마무리되기에 이른다. 이제 마지막으로 <황강구곡가>를 보기로 한다.

<도통가>의 창작으로도 부족했던 것일까? 권섭은 그의 만년 여생을 구곡가 창작과 편찬으로 보내게 된다. 무엇 때문에 그는 구곡가에 매달린 것일까?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구곡가 인식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구곡 경영은 남다른 데가 있었으며 그 속에서 구곡시를 짓는 것은 일찍부터 전통으로 자리잡고 있었다.<sup>17)</sup> 율곡 이이 또한 이러한 전통을 이어 <고산구곡가>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율

16) <黃江書院廟庭碑>, ■■玉所藏杏■■, 66면.

17) 이에 대해서는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국어교육연구회, 1991.12)’ 참조.

곡의 <고산구곡가> 창작을 여타의 구곡시 창작과 동일한 차원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양자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다. 여타의 사대부들이 주자의 <무이구곡가>를 차운한 한시 구곡시를 지은 데 비해 율곡은 국문시가인 <고산구곡가>를 지었다. 겉으로 보면 단지 한시와 국문시가라는 표현상의 차이에 지나지 않지만 문제는 이에 대한 후대인들의 인식이라 할 수 있다. 율곡의 학문과 사상을 계승한 서인들—노·소 분당 이후에는 노론들—은 주자에 게서 끊어진 도맥이 조선의 율곡에게 이어진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들에게 국문시가 <고산구곡가>의 창작은 주자를 이은 조선 도맥의 새로운 창출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17세기 말~18세기 초 노론계 문인들은 당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산구곡첩■■ 제작 사업에 착수하게 된다. 처음 송시열에 의해 1688년에 시작된 이 사업은 송시열 사후 권상하의 주도 하에 1709년 최종 완성되었다. 노·소 대립이라는 정치 환경 속에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당대 노론 핵심 세력의 정치적 의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고산구곡첩■■의 제작이라 할 수 있다.<sup>18)</sup>

권섭의 ■■옥소장계■■ 편찬은 전대의 ■■고산구곡첩■■ 제작과 비슷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17세기 말~18세기 초 노론계 문인들이 ■■고산구곡첩■■ 제작에 매달린 것은, 소론이 ‘이이→김장생→김집→송준길·송시열’로 이어지는 노론의 학맥을 부정하고 ‘성수침→성혼→윤선거→윤증’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학맥을 주장한 것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 데다 소론의 공격으로 상당한 정치적 위기 의식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18세기 호론이 처한 입장은 이것과 매우 흡사한 것이었다. 18세기 중반 호론 역시 ‘송시열→권상하→한원진’으로 이어지는 기호학파의 계보를 부정하고 ‘송시열→김창협→이재’로 이어지는 새로운 계보를 주장하는 낙론에 일정하게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김창협과 김창흡의 문인들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것에 상당한 위기 의식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전대의 ■■고산구곡첩■■

18) 17세기 말~18세기 초 ■■고산구곡첩■■ 제작과 관련해서는 ‘이상원, 『조선 후기 <고산구곡가> 수용의 한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참조.

제작 사업에 버금가는 ■■옥소장계■■ 편찬을 구상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황강구곡가>의 창작은 ■■옥소장계■■의 구성상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었다. 이이가 부정되는 현실이 ■■고산구곡첩■■을 제작하게 만들었듯이 권상하가 부정되는 현실이 ■■옥소장계■■를 편찬하게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이의 경우 이미 <고산구곡가>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권상하의 경우 구곡가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권섭은 ■■옥소장계■■를 편찬하면서 <황강구곡가>를 창작하기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작품을 통해 <황강구곡가>가 ■■옥소장계■■의 편찬을 위한 의도적 창작이었음을 확인해 보기로 한다.

하늘이 궤흘 여러 地界도 붉을시고  
千秋 水月이 分뻗기 몹아세라  
아마도 石潭 巴谷을 다시 불듯 ㅎ여라. 摠歌

三曲은 어드메오 黃江이 여기로다  
洋洋 絃誦이 舊齋를 니어시니  
至今의 秋月亭江이 어제론듯 ㅎ여라. 黃江

四曲은 어드메오 일흠도 嶽危도 嶽危도  
灘聲과 岳危이 一壑을 흔드논디  
그 아래 汲히 자는 龍이 權歌聲의 찌거다. 皇恐灘

五曲은 어드메오 이 어인 權소이 런고  
일흠이 偶然한가 化翁이 기드린가  
이 中의 左右 村落의 살아 불가 ㅎ노라. 權湖<sup>19)</sup>

‘摠歌’에서는 “아마도 石潭 巴谷을 다시 불듯 ㅎ여라”라 하여 권상하의 황강구곡이 이이의 석담구곡과 송시열의 화양구곡을 이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이것이 ‘총가’가 의미하는 전부라고 할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구곡가에

19) 박요순, 앞의 책, 218면.

서 ‘총가’의 비중은 매우 크다. 이이는 <고산구곡가> 서시에서 “武夷를 想象  
 하고 學朱子를 히리라”고 하여 주자의 무이구곡을 본받겠다는 뜻을 분명히 나  
 타냈으며, 이는 후대에 조선 도맥의 새로운 창출로 해석되었다. 이런 서시의  
 비중을 감안한다면 권섭이 <황강구곡가>를 지으면서 ‘총가’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 권섭이 기울인 노력의 정체는  
 무엇일까? 작가의 의도와 관련해서 ‘총가’를 바라볼 경우 초장과 중장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초장은 송시열의 <咏高山九曲歌寄示權致道尙夏><sup>20)</sup>라는  
 시의 첫 구를 차용한 것이다. 중장 역시 송시열과 관련된 것이다. 이는 송시열  
 이 주자 시의 일부를 따 寒水라는 호를 지어준 일과 관계된 것이다.<sup>21)</sup> 이렇게  
 본다면 권섭이 ‘총가’에서 의도한 것은 송시열의 적통을 계승한 것이 권상하임을  
 부각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김창협을 송시열의 적통자로 인  
 정하는 낙론을 다분히 의식하였기 때문이다.

‘총가’ 외에도 삼곡, 사곡, 오곡 등에서 작가의 의도성을 엿볼 수 있다. 삼곡  
 의 황강은 권상하가 寒水齋를 짓고 黃江八學士를 길러낸 곳이다. 이에 따라  
 권섭은 황강팔학사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비들이 강학에 몰두하는 모습을 통해  
 권상하의 도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왕성하게 이어지고 있음을 노래했다. 사

20) 이 시는 ■■고산구곡첩■■ 제작 과정에서 <고산구곡시>의 首詩로 활용되  
 기도 하였다. 참고로 이 시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백 년 만에 하늘과  
 땅 영기를 모아 / 울곡의 자품 빼어나고 청아하다 / 고산의 아홉 굽이 그윽한  
 곳에 / 잔잔히 흐르는 증점의 비파 소리인 듯(五百天鍾地炳靈 / 栗翁資稟秀而清  
 / 高山九曲幽深處 / 汨瀟寒流點瑟聲)”. <고산구곡가를 읊어 권치도상하에게 보내  
 다[咏高山九曲歌寄示權致道尙夏]>, ■■국역 송자대전■■ I (민족문화추진회,  
 1988), 144면.

21) “한수재(寒水齋)가 낙성되었다. 재(齋)가 낙성되자 우암 선생이 한수(寒水)라고  
 명명하고서 손수 편액을 썼으며, 또 소서(小序)를 지어 ‘회암 선생(晦菴先生)이  
 옛 성인들의 연원을 차례로 서술하기를 ‘삼가 천 년의 마음을 생각해 보니 가을  
 달이 찬 물에 비치네.[恭惟千載心 秋月照寒水]’라고 하였다. 나의 벗 권치도(權致  
 道)가 청풍강(淸風江) 가에 작은 서재(書齋)를 짓고 그 속에서 글을 읽으면서 나  
 에게 편액을 써 달라고 청하기에 삼가 이 한수라는 두 글자로서 걸어준다.’ 하였  
 으니 대개 오도(吾道)를 부탁하는 뜻이 이미 여기에 나타났다.” <寒水齋先生年  
 譜> 1686년 10월, ■■국역 한수재집■■5(민족문화추진회, 1990), 18면.

곡과 오곡은 이름의 특이함을 활용하여 뜻을 나타냈다. 사곡의 초장에서 “일 흠도 흘난홀샤”라고 한 것은 皇恐灘이 중국 江西省에 있는 감강(贛江) 十八灘의 하나인 황공탄(皇恐灘 또는 惶恐灘)과 이름이 같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감강 황공탄의 발원지가 바로 武夷山이라는 점이다. 이 점을 활용하여 권섭은 ‘무이산에서 발원한 물이 감강의 황공탄에 이르는 것’과 ‘주자의 무이구곡의 도학이 권상하의 황강 황공탄에 이어지고 있는 것’을 교묘하게 포개어 놓았다. 오곡은 이름이 權소(또는 權湖)임을 들어 이곳이 권상하의 은거지로 운명지어진 곳을 부각하려 한 듯하다. 중장에서 “일흠이 偶然호가 化翁이 기드런가”라 했는데, 여기서 의미 비중은 당연히 뒤쪽에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化翁이 權소(또는 權湖)라 지어놓고 권씨 성을 가진 주인—권상하—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다는 뜻이 된다.

이상 ‘총가’를 비롯하여 몇 개 장을 검토해 보았는데 이를 통해 권섭이 <황강구곡가>를 창작하게 된 의도를 분명히 엿볼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 IV. 결론

이 글은 권섭의 <도통가>와 <황강구곡가> 창작에 관여한 정치적 배경과 그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권섭이 <도통가>와 <황강구곡가>를 지은 것은 호락논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권섭이 <도통가>를 지어 조선의 도학이 ‘이이→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밝힌 것은, 호락논쟁의 와중에서 낙론에 대한 호론 나름의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처음 인물성동이논쟁으로 시작된 호락논쟁은 논쟁이 진행되면서 점차 지역적 대립 구도로 고착되고 급기야 정치적 성격으로 전화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낙론계는 ‘이이→송시열→권상하’로 이어지는 조선의 도통을 부정하고 ‘이이→송시열→김창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도통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권섭으로 하여금 <도통가>를 짓게 만든 배경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통가>에서는 송시열의 진정한 계승자가 권상하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했다.

한편 호락논쟁의 와중에서 진정한 도통을 수립하고자 했던 권섭의 노력은 당연히 일회적인 <도통가>의 창작에 그치지 않았다. 1745년에 지은 <황강서원묘정비>를 통해 그는 도통이 송시열에게서 권상하로 이어지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어서 그는 1748년에 <도통가>를 창작하였으며, 1752년 무렵에는 <황강구곡가> 창작과 ■■■옥소장계■■■의 편찬을 통해 자신의 만년 사업을 최종 완성시킨 것으로 보인다.

비록 <도통가>와 <황강구곡가>에 국한하여 살펴본 것이기는 하지만 위의 결론은 권섭의 삶과 문학을 논한 기존의 시각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갖게 만든다. 기존 연구에서는 권섭의 삶과 관련하여 개성적 면모와 자유분방함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또 그의 문학과 관련하여 주제나 소재의 다양함과 표현의 독특함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도통가>나 <황강구곡가>, 그리고 다음에 인용하는 작품들을 고려할 때 이런 기존의 평가는 지나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청룡검(靑龍劍) 빼쳐 들고 풀 쏘내며 넓혀 서니  
 백만(百萬) 호병(胡兵)이 풀 찢니듯 험거고야  
 그제야 북 뚱뚱 울리며 안비 서귀(徐歸) 해야고. 記夢

오산고(烏山高) 낙수영(洛水永)하니 석일편지장류(石一片之長留) | 로다  
 덕노산가(寂寥山家)의 독보구시갑즈(獨保舊時甲子) | 로다  
 디금(至今)의 청풍(淸風)이 취우류(吹宇宙)하니 여이제이동귀(與夷齊而同歸)로다.<sup>22)</sup>

過善山砥柱碑

첫 번째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인식은, ‘주자절대화’ 경향과 ‘존주대의론’으로 요약되는 송시열의 정치사상을 계승하여 시대착오적인 북벌론을 끝까지 외치며 지배질서를 공고히 하고자 했던 호론의 인식과 그대로 일치하고 있다. 두 번째 작품 또한 冶隱 吉再(1353~1419)의 절개를 칭송한 것으로 첫 번째

22) 박요순, 앞의 책, 196면.

작품의 지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개성적 면모와 자유분방함을 강조하면서 이를 18세기 사회 변동과 예술환경의 변화와 곧바로 연결 지은 기존의 해석은 그의 문학에 나타나는 부분적 측면을 성급하게 일반화한 것이 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지금까지 우리는 권섭의 삶과 문학에 나타나는 특이함에 주목하고 이를 새로운 것에 대한 지향으로, 나아가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이 모두 새로운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그 특이함이 어디에 기반하고 있으며,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점일 것이다. 이런 점에서 <도통가>와 <황강구곡가>를 통해 얻은 결론을 참조하여 권섭 문학의 특이함을 평가한다면 그것은 소재적 차원에 국한된 것으로 제한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주제어** : Kwon, Seop(권섭), <Dotong-ga>(도통가), <Hwangganggugok-ga>(황강구곡가), Horak dispute(호락논쟁)

## 참고 문헌

### ■ 자료

■■국역 송자대전■■1, 민족문화추진회, 1988.

■■국역 한수재집■■5, 민족문화추진회, 1990.

■■玉所藏杏■■.

### ■ 저서 및 논문

고순희, 『<노처녀가 I> 연구』, ■■한국시가연구■■ 제14집, 한국시가학회, 2003.8, 165~193면.

권성민, 『옥소 권섭의 국문시가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1992.

권오영, 『호락논변의 쟁점과 그 성격』,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

배개, 2003.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23, 국어교육연구회, 1991.12.

김문기, 『옥소 권섭의 구곡가계 시가 연구』, ■■■청봉 최태호 박사 화갑기념논총■■■, 동 논총간행위원회, 2000.

박길남, 『권섭 시조의 주제의식 고』, ■■■한남어문학■■■21, 한남어문학회, 1996.

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1986.

박요순, ■■■옥소 권섭의 시가 연구■■■, 탐구당, 1990.

박이정, 『18세기 예술사 및 사상사의 흐름과 권섭의 <황강구곡가>』, ■■■관악어문연구■■■27,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02.

서동일, 『■■■頤齋亂藁■■■에 나타난 조선 후기 湖洛논쟁』, ■■■古文書研究■■■ 20, 한국고문서학회, 2002.

윤사순, 『人性 物性的 同異論辯에 대한 연구』, ■■■한국유학사상론■■■, 열음사, 1986.

윤정화, 『옥소 권섭 연시조의 성격과 그 시조사적 의미』, ■■■국어국문학■■■35, 부산대학교, 1998.

이상원, 『조선 후기 <고산구곡가> 수용의 한 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제24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이승환, 『道統-유학의 참 정신을 잇는 계보』,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460~484면.

이애희, 『人物之性-인간과 사물의 본질』, 한국사상사연구회 편, ■■■조선유학의 개념들■■■, 예문서원, 2002.

이창식, 『권섭의 가사 <영삼별곡>과 <도통가> 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제4집, 세명대학교, 1996.

이창희 역주, ■■■옥소 권섭의 꿈세계-내 사는 곳이 마치 그림 같은데■■■, 다운샘, 2003.

장정수, 『<영삼별곡> 연구』, ■■■어문논집■■■32, 고려대 국어국문학연구회, 1993.

장정수, 『<황강구곡가>의 창작 배경과 그 성격 연구』, 한국시조학회 제35차 전국 학술대회 발표문, 2003.5.17.

정흥모, 『옥소 권섭의 시조 재론』, ■■■대진논총■■■1, 대진대학교, 1993.

趙成山, 『朝鮮後期 洛論系 學風의 形成과 經世論 研究』,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2003.

최호석, 『옥소 권섭의 소설 한역과 그 의미』, ■■■고소설연구■■■11, 고소설학회, 2001.

※ 이 논문은 2003년 10월 30일 투고 완료되어 2003년 11월 22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03년 11월 29일까지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